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 분석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younh@sdi.re.kr



제1절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또한 고령화 속도가 주요 OECD 국가들의 과거 고령화 추세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고령자들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정책은 자치단체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2007년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1분위의 가구주의 평균나이는 55세로 저소득 가구의 대부분이 고령자 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3만원인 반면 지출은 124만원에 달해 고령자 가구는 대부분 적자가구임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정의를 연령기준에 의해 할 때 두 가지 접근이 있다. 먼저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경제활동을 은퇴한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로 이때가 되면 육체적으로 노쇠하여 일반적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통념이다. 물론 법에 의해 노인연령이 정해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레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최근연구: 의료관광, 고령자 고용

져 있고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시간직에 그치고 있어 가계재정은 근로소득에 의하기 보다는 공적지원소득, 사적지원소득과 같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이용하거나 보유자산으로부터 얻는 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들이 고령자에 관한 논의를 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라 한다. 국내 기업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이 56-57세 임을 감안하면 55세 이상은 퇴직 직전 혹은 은퇴한 연령을 의미한다. 고령가구 가계재정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연령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 혹은 국내외 선행연구 사례보다도 주요한 것은 현실적인 노동시장 동향과 고령가구의 가계 재정 운영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연금수령 시기와 연동이 되어 정년시기가 대부분 65세에 이르게 되어 65세까지는 취업률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65세가 지나면 취업률이 10%로 급격히 감소하여 대부분의 고령자가 공적연금 혹은 개인연금, 저축에 의해 생활을 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 55-58세 사이에 대부분 정년을 맞게 되고 적지 않은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 방침에 따라 50대 초중반에 조기퇴직을 한다. 따라서 55세 이후 일하지 않는 고령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들 역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자가 근로소득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들의 가계재정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이들 계층의 가계재정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고령화에 따라 55세이상 인구는 2000년 이후 1.4백만명에서 2008년 1.9백만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55세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 13.5%에서 2008년 18.6%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편 6.25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들 연령대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55세 이상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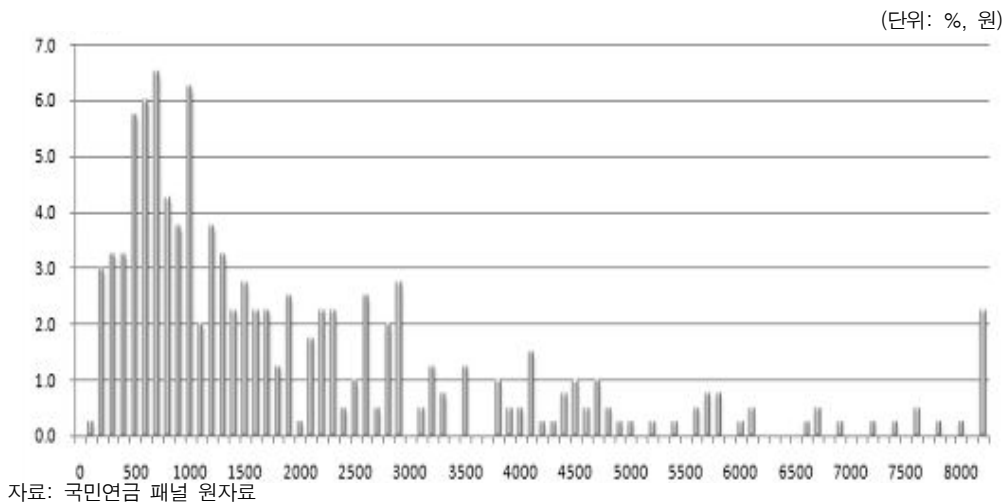
고령자의 가계재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본 원고에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통해 서울시 고령가구의 가계재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소득의 분석할 때 고령가구의 소득안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혹은 공적이전소득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 원천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어진 가계소득 아래서 가구특성에 따라 지출항목별로 어떻게 지출하는지 살펴본다. 특별히 고령가구들은 일반적으로 절대 소득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생계에 필요한 의료비, 주거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부터 국민연금 고령자패널로부터 서울지역의 55세 이상 가구를 둔 401가구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가지고 고령가구의 가계재정 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서울시 고령가구 가계소득

본 절에서 고령자 가계재정을 이해하기 위해 소득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고령가구의 평균소득은 월평균 201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소득보다는 낮다. 특별히 100만원 미만 가구가 절반에 해당하는 44.1%로 저소득 가구가 많으며 소득불평등이 크다. 우리나라의 고령가구 소득의 원천을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선진국의 특징인 공적이전소득의 기여는 매우 적다. 또한 소득원천이 부분적으로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고령가구의 소득은 가구특성에 따라 이분화 될 수 있다. 남성가구주, 저연령, 고학력 가구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소득원천은 주로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이다. 반면 여성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가구는 저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원천은 주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다.

1. 고령가구 가계소득의 분포

서울시 고령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209만원이다. 월평균소득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은 21.4%이다. 50만원~100만원은 22.7%로 가장 많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 가구가 절반에 해당하는 44.1%이다. 100~150만원은 14.2%이고 150만원 이상은 41.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월평균소득 분포는 좌 편향을 지니고 있어 소득 불평등이 큰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서울시 고령가구 소득분포

〈표 1〉 서울시 고령가구 소득분포

(단위 : 천원, 가구, %)

계급	빈도수	비중	누적빈도수	누적비중
0	1	0.2	1	0.2
~500	85	21.2	86	21.4
~1,000	91	22.7	177	44.1
~1,500	57	14.2	234	58.4
~2,000	32	8.0	266	66.3
~2,500	34	8.5	300	74.8
~3,000	23	5.7	323	80.5
~3,500	13	3.2	336	83.8
~4,000	14	3.5	350	87.3
~4,500	11	2.7	361	90.0
~5,000	8	2.0	369	92.0
~5,500	4	1.0	373	93.0
~6,000	9	2.2	382	95.3
~6,500	1	0.2	383	95.5
~7,000	3	0.7	386	96.3
~7,500	4	1.0	390	97.3
~8,000	2	0.5	392	97.8
~10,000	4	1.0	396	98.8
~20,000	3	0.7	399	99.5
~30,000	1	0.2	400	99.8
~68,500	1	0.2	4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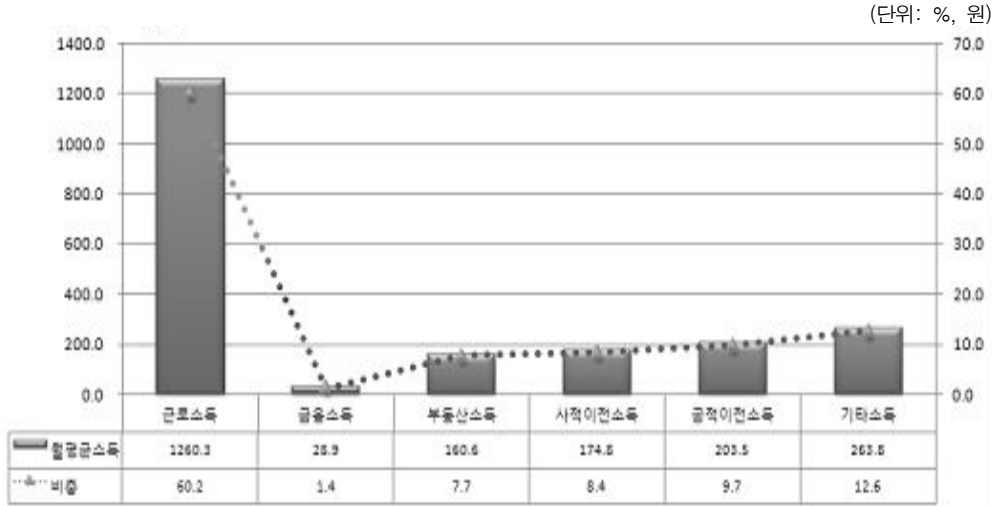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2. 고령가구 가계소득의 원천

1) 전반적인 소득의 원천

서울시 고령가구의 월평균 소득 209만원을 원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이 126만원으로 과반이 넘는 60.2%를 차지한다. 그 외 부동산소득 16만원(7.7%), 사적이전소득 18만원(8.4%), 공적이전소득 20만원(9.7%), 기타소득 26만원(12.6%)이다.

우리나라의 고령가구 소득의 특성은 아직도 선진국과는 달리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선진국의 특성인 공적이전소득의 기여는 매우 적다. 따라서 고령가구의 소득원천이 부분적으로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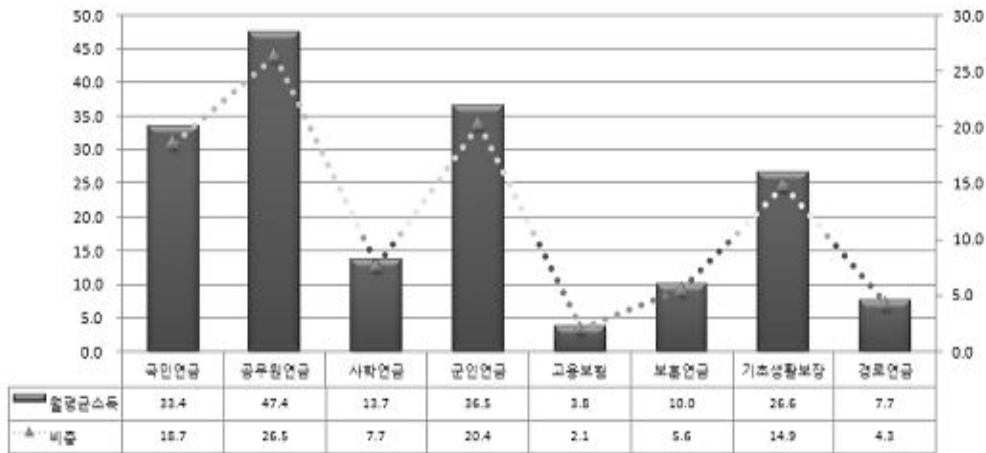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고령가구 소득의 원천

(1)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지급해 준 일체의 정기성 현금지원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종류로는 공적연금, 보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보호수당, 노인교통비 등이 있다. 고령가구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20만원을 유형별로 보면 특수직역 연금인 공무원연금(26.5%)과 군인연금(20.4%) 금액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국민연금(13.7%)과 기초생활급여(14.9%)가 있다.

고령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액도 적지만 대부분이 특수직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국민연금 비중이 적어 아직은 고령가구 대다수가 공적이전소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다.

(단위: %, 원)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그림 3] 서울시 고령가구 공적이전소득의 유형별 비중

특히 고령가구의 생활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각각 월평균 146만원, 275만원, 18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혜가구는 13가구, 2가구, 8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석가구의 5.3%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71가구에 이르지만 기여기간이 짧아 월평균 지급금액이 19만원에 불과하여 생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2007년부터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225명이 받고 있지만 금액이 매우 미미하다.

<표 2> 국민연금 패널 연금수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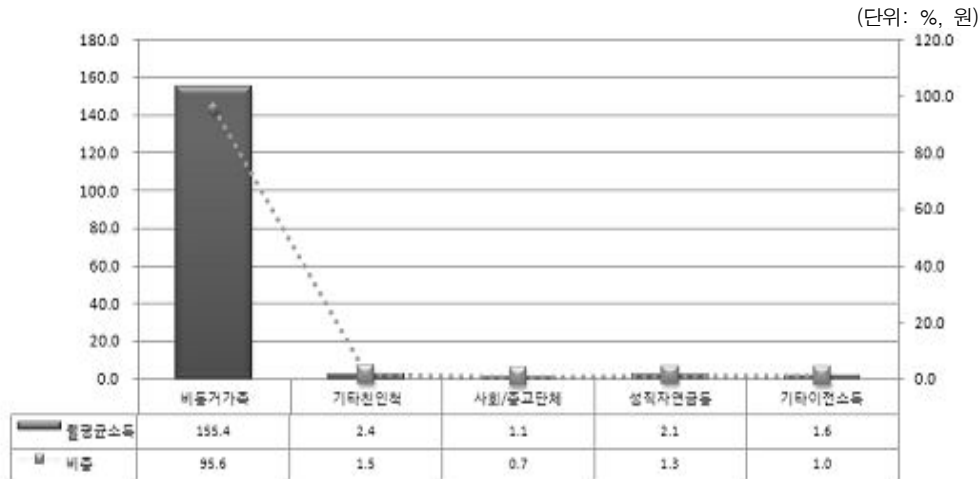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가구, %)

연금종류	가구수	월평균공적이전소득(A)	월평균총소득(B)	비중(A/B*100)
국민연금	71	188.8	2,165.9	8.7
공무원연금	13	1,462.3	3,608.0	40.5
사학연금	2	2,750.0	2,916.7	94.3
군인연금	8	1,829.2	3,140.0	58.3
고용보험	3	505.6	1,954.4	25.9
부흥연금	18	221.8	1,142.1	19.4
기초생활보장	35	304.9	490.1	62.2
경로연금	225	13.6	1,108.5	1.2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2)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친지, 사회단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사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은 비동가족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비동가족으로부터 얻는 사적이전소득은 약 15만원이다. 분석대상 가구 401가구 가운데 비동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는 183가구로 전체가구의 45.6%이다. 이들 가구로 제한할 때 평균적인 사적이전이전소득은 34만원이다.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그림 4] 서울시 고령가구 사적이전소득의 유형별 비중

<표 3> 사적이전소득 수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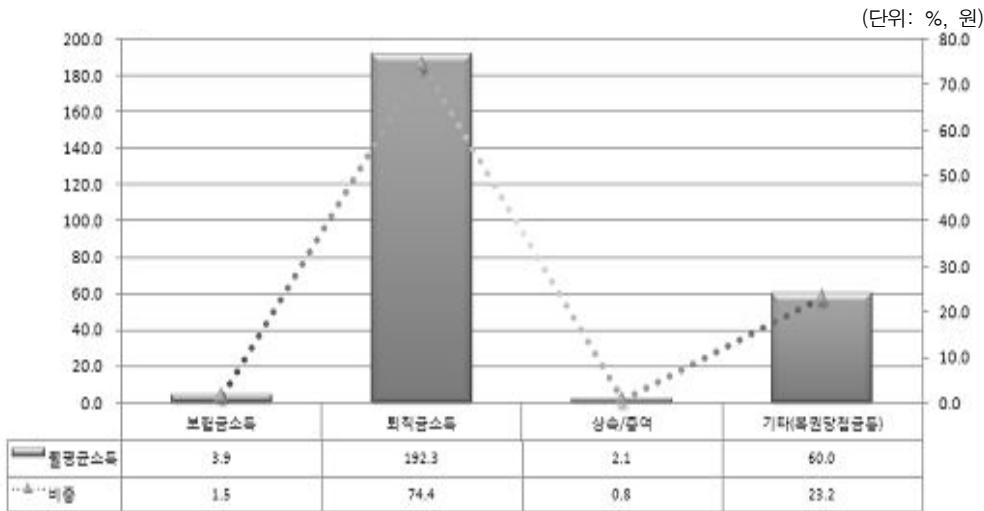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가구, %)

	가구수	월평균사적이전소득(A)	월평균총소득(B)	비중(A/B*100)
비동가족으로부터	183	340.6	1,349.9	25.2
기타친인척으로부터	6	161.1	706.7	22.8
사회/종교단체로부터	14	31.1	428.0	7.3
성직자연금등으로부터	3	282.2	523.2	53.9
기타이전소득	13	48.5	508.9	9.5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퇴직금, 공적 연금/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일시금,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현물(시가환산), 결혼 및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경조사금, 복권당첨금 등의 일시적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대부분은 퇴직금소득(74.4%)이다. 분석대상 401가구 가운데 퇴직금을 수령한 가구는 12가구로 월평균 77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그림 5] 서울시 고령가구 기타소득의 유형별 비중

<표 4> 기타소득 수혜 현황

(단위 : 천원, 가구, %)

소득종류	가구수	월평균기타소득(A)	월평균총소득(B)	비중(A/B*100)
보험금소득	3	527.8	5,894.4	9.0
퇴직금소득	12	6,424.4	10,665.7	60.2
상속/증여	1	833.3	1,713.3	48.6
기타(복권당첨금등)	26	924.7	3,470.6	26.6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2) 가구특성별 소득원천

(1) 소득별 소득원천

100만이하의 저소득가구의 소득원천을 보면 근로소득이 33.8%, 사적이전소득 30.6%, 공적이전소득 24.5%이다. 이들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다. 다음 평균소득 이하인 100~200만원 가구를 보면 근로소득이 54.1%, 사적이전소득 18.6%, 공적이전소득 14.1%이다.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증가하였고 이전소득 비중은 감소하였다.

평균소득 이상인 200~300만원 가구의 소득원천을 보면 근로소득이 68.6%, 부동산 소득 7.6%, 공적이전소득 14.1%이다. 근로소득 비중은 더욱 높아졌으며 부동산소득 비중도 보인다. 3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근로소득 64.3%, 기타소득 20.0%이다. 이들 가구는 일시소득 개념인 기타소득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2) 연령별 평균소득과 소득원천

55~64세인 저연령 가구의 평균소득은 345만원으로 매우 높다. 소득원천을 보면 근로소득이 237만원(68.7%), 기타소득 57만원(16.7%)이다. 이들 저연령 고령자는 취업률이 높아 근로소득 비중이 크다. 65~74세 가구의 평균소득은 175만원으로 고령가구 평균 201만원에 비해 적다. 소득의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67만원(38.2%), 사적이전소득 17만원(9.7%), 공적이전소득 24만원(13.7%)이다.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지면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커진다. 75세 이상 고연령 가구의 평균소득은 89만원으로 매우 낮다. 근로소득 16만원(17.9%), 사적이전소득 35만원(39.3%), 공적이전소득 20만원(22.2%)이다. 이 연령대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은 낮아지고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한다. 한편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과 같은 외부의존도가 증가하게 된다.

(3) 성별 평균소득과 소득원천

남성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60만원으로 평균보다 높다. 소득의 원천을 보면 근로소득이 166만원(63.8%), 부동산소득 18만원(6.9%), 공적이전소득 21만원(8.1%)이다.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근로소득 46만원(46.0%), 사적이전소득 20만원(20.0%), 공적이전소득 17만원(17.0%)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다. 여성의 경우 근로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저소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계재정을 위해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4) 교육별 평균소득과 소득원천

무학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8만원으로 매우 낮다. 소득의 원천을 보면 사적이전소득 22만원(45.8%), 공적이전소득 11만원(22.9%)이다. 무학 고령가구는 소득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초졸 가구의 평균소득은 118만원으로 낮다. 소득의 원천을 보면 근로소득이 71만원(60.1%), 사적이전소득 19만원(16.1%), 공적이전소득 12만원(10.1%)이다.

중졸의 평균소득은 167만원이다. 근로소득 126만원(75.5%), 부동산소득 13만원(7.8%)으로 다른 학력에 비해 근로소득이 가장 높다. 고졸의 평균소득은 225만원으로 고령가구 평균보다 약간 높다. 근로소득 153만원(68.0%), 부동산소득 22만원(9.8%), 공적이전소득 20만원(8.9%)이다.

대졸의 평균소득은 419만원으로 평균소득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근로소득 203만원(48.8%), 기타소득 126만원(30.0%)으로 물적인적 자산의 축적으로 도출되는 비정상적인 소득이 많다. 대학원 졸업의 평균소득은 585만원으로 매우 높다. 근로소득 304만원(51.9%), 공적이전소득 108만원(18.4%), 기타소득 83만원(14.2%)이다. 이들 학력의 경우 고령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고위임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여 여전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혹은 은퇴하였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보아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꽤 높다.

학력별 소득을 보면 고령에 접어들수록 학력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학력자의 경우 근로활동기에 높은 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인 연금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저학력자의 경우 소득은 매우 낮고 그 소득마저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고령가구의 학력별 소득격차를 저연령가구의 학력별 소득격차와 비교하여 보면 고령가구의 소득격차가 확연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평균소득은 230만원인 반면 국민연금 패널자료에 의한 고령가구의 소득은 118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격차는 줄어들지만 중졸 및 고졸학력에서 저연령 가구의 소득이 고령가구의 소득보다 높다. 반면 고학력자인 대졸의 경우 고령가구의 평균소득은 420만원으로 저연령 평균소득 395만원에 비해 오히려 높다. 유사한 소득차이가 대학원졸업자에게서도 보인다.

〈표 5〉 중장년층과 고령자의 학력별 소득수준 비교

(단위 : 천원)

	무학	초등학교이하	중학교이하	고등학교이하	대학교이하	대학원이하
30~54세	800.0	2,298.6	2,560.6	2,925.5	3,950.2	5,155.1
55세이상	487.1	1,180.0	1,668.1	2,249.1	4,194.3	5,854.5

자료: 도시가계조사,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그림 6] 서울시 고령가구 가계소득의 이분적인 특성

〈표 6〉 서울시 고령가구 특성별 소득원천

(단위 : 천원)

구분		가계총 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성 별	남자	2,592.5	1,626.6	38.6	176.7	161.1	217.5	372.0
	여자	999.1	460.8	7.6	125.4	204.8	172.8	27.7
연 령 별	55~64	3,448.7	2,366.8	40.5	207.1	91.9	165.9	576.5
	65~74	1,305.1	673.5	17.3	122.0	176.1	240.4	75.8
	75~	886.8	160.1	29.0	144.1	348.8	204.4	0.5
교 육 수 준	무학	487.1	140.3	1.1	17.9	217.6	110.2	0.0
	초등학교이하	1,180.0	712.0	15.2	90.8	198.3	125.7	38.0
	중학교이하	1,668.1	1,259.1	29.9	128.2	107.0	101.0	42.9
	고등학교이하	2,249.1	1,534.5	30.1	220.0	112.5	205.6	146.3
	대학교이하	4,194.3	2,039.7	52.9	202.4	315.0	325.1	1,259.2
	대학원이하	5,854.5	3,041.7	89.4	612.2	202.8	1,080.6	827.8
가 구 원 수	1인	636.2	185.5	7.5	54.6	173.7	186.8	28.1
	2인	1,504.9	688.8	36.6	185.1	237.1	242.8	114.5
	3인	2,554.6	2,046.5	28.5	149.6	138.0	131.2	60.7
	4인	5,369.2	3,211.8	37.9	281.2	46.5	243.3	1548.6
	5인	3,317.0	2,754.4	56.9	222.2	127.8	155.7	0.0
	6인	7,023.6	5,094.2	0.0	150.0	25.0	104.4	1,650.0
소 득 별	100만원이하	499.5	168.8	16.0	33.0	152.8	122.5	6.5
	200만원이하	1,406.8	761.4	24.8	163.5	261.9	159.1	36.1
	300만원이하	2,433.9	1,669.2	38.3	184.2	129.1	342.0	71.1
	300만원이상	6,236.9	4,007.5	56.0	429.5	158.7	336.7	1,248.5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제3절 서울시 고령가구 가계지출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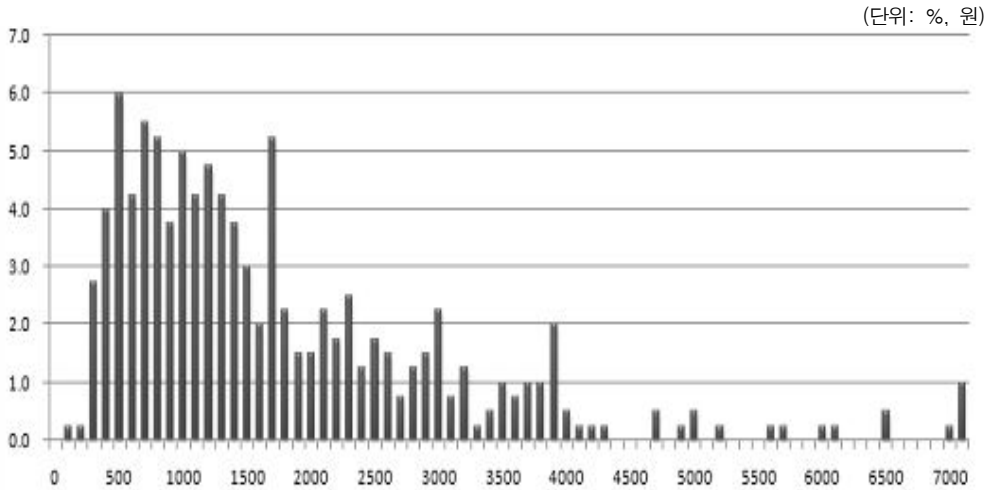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가계지출 면에서 고령가구 재정을 이해하기로 한다. 먼저 고령가구 가계지출의 분포를 살펴본다. 다음 주요 항목의 가계지출을 분석하기 위해 지출과 소득, 가구원, 가구주 성별, 교육, 직업 등 가구특성과의 교차분석을 시행한다.

서울시 고령가구의 지출은 월평균 172만원으로 월평균 소득 201만원과 비교하며보면 지출금액이 적어 외견상 29만원 흑자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100만원 미만의 저지출 가구가 36.9%이다. 하지만 지출분포를 보면 지출불평등도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고령가구의 월평균지출 172만원을 품목별로 보면 식비 41만원(23.7%), 주거광열비 20만원(11.5%), 보건의료비(7.7%)가 타 연령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패턴은 소득과 가구특성에 따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식비, 주거광열비, 보건의료비가 한 지출그룹이 된다. 이들 품목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떨어진다. 반면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교육보육비, 기타소비, 비소비는 또 하나의 지출그룹을 형성한다. 이들 품목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올라간다.

1. 고령가구 가계지출의 분포

서울시 고령가구의 월평균지출은 172만원으로 월평균소득 201만원 대비 29만원 흑자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지출의 분포를 보면 50만원 미만의 저지출은 13.2%이다. 역시 저지출 금액대인 50만원~100만원은 23.7%로 가장 많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의 저지출 가구가 36.9%이다. 100~150만원은 20.0%이고 150만원 이상은 43.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월평균지출 분포는 좌 편향을 지니고 있어 불평등이 큰 것을 보여준다.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그림 7] 서울시 고령가구의 지출분포

<표 7> 서울시 고령가구의 지출분포

(단위 : 천원,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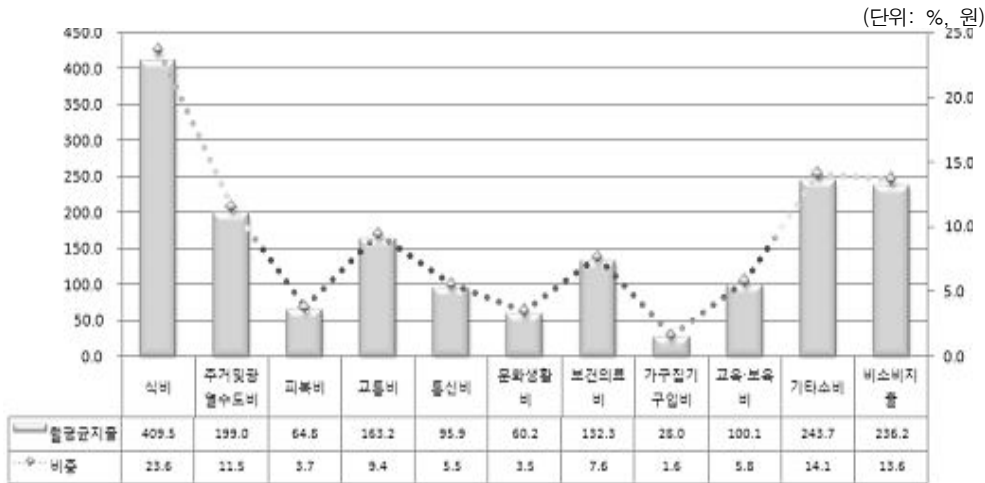
계급	빈도수	비중	누적빈도수	누적비중
0	0	0.0	0	0.0
~500	53	13.2	53	13.2
~1,000	95	23.7	148	36.9
~1,500	80	20.0	228	56.9
~2,000	50	12.5	278	69.3
~2,500	38	9.5	316	78.8
~3,000	29	7.2	345	86.0
~3,500	15	3.7	360	89.8
~4,000	21	5.2	381	95.0
~4,500	3	0.7	384	95.8
~5,000	5	1.2	389	97.0
~5,500	1	0.2	390	97.3
~6,000	3	0.7	393	98.0
~6,500	3	0.7	396	98.8
~7,000	1	0.2	397	99.0
~10,000	2	0.5	399	99.5
~15,500	2	0.5	401	100.0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2. 주요항목별 지출

1) 전반적인 항목별 지출

서울시 고령가구의 월평균지출 172만원을 원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식비 41만원(23.7%), 주거광열비 20만원(11.5%), 교통비 16만원(9.5%), 보건의료비 13만원(7.7%), 기타소비 24만원(14.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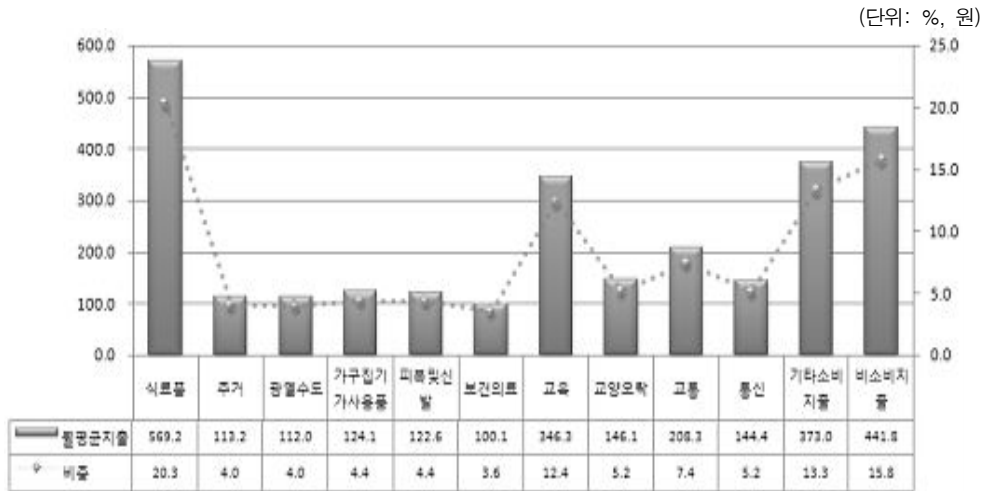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그림 8] 서울시 고령가구의 항목별 지출

2) 타 연령대와 비교

고령가구의 지출구조를 도시가계조사(2007) 서울지역 자료로부터 얻은 가구주 연령이 30~54세인 가구들의 지출구조와 비교하여 고령가구 지출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고령가구의 식비(23.6%)는 타 연령 가구의 20.3%보다 약간 높다. 고령가구의 주거광열비(11.5%)는 타 연령 가구의 8.0%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고령가구의 주거유형이 월세가 많기 때문이다. 고령가구의 보건의료비(7.6%)는 타 연령 가구의 3.6%의 배에 달한다. 한편 타 연령 가구의 교육비(12.4%)와 교양오락(5.2%)는 고령가구의 5.8%와 3.5%에 비해 높다. 고령가구는 타 연령의 서울시 가구에 비해 주거광열비와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아 특별히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이 지출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서울시 원자료

[그림 9] 서울시 도시가구 타 연령(20~54세) 가구의 항목별 지출

3) 고령가구 특성별 항목지출

(1) 소득별 지출

100만이하의 저지출 가구의 지출구성을 보면 식비가 31.3%, 주거비 18.9%, 보건의료비 10.1%이다. 이들 가구는 식비와 주거광열비, 보건의료비 비중은 높고 이들 세 지출 비중이 60.3%에 해당한다. 이들 가구는 생계에 꼭 필요한 이들 항목에 주로 지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균지출 이하인 100~200만원 가구를 보면 식비가 25.9%, 주거광열비 13.2%, 보건의료비 11.0%이다. 이들 가구의 식비와 주거광열비 비중은 낮아졌다.

평균지출 이상인 200~300만원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2.8%, 주거광열비 9.4%, 교통비 9.6%, 보건의료비 6.4%이다. 이들 가구의 식비와 주거광열비 비중은 낮아진 반면 교통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들 가구의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00만원 이상 고지출 가구는 식비가 18.5%, 주거광열비 7.3%, 교통비 11.9%, 문화비 4.8%, 보건의료비 5.2%이다. 이들 가구의 교통비와 문화비 비중은 증가한다. 차량소유로 인해 교통비가 증가하고 소득의 향상에 따라 문화비 비중도 늘어나게 되었다.

(2) 성별 지출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3.7%, 주거광열비 10.3%, 보건의료비 7.5%, 기타소비가 14.3%이다. 반면 여성 가구주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3.3%, 주거광열비 16.0%, 보건의료비 9.0%, 기타소비가 13.3%이다. 여자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주거광열비와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다.

(3) 연령별 지출

55-64세인 저연령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0.5%, 주거광열비 9.3%, 교통비 11.2%, 기타소비 14.9%이다. 65~74세 가구주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7.7%, 주거광열비 13.2%, 보건의료비 9.6%, 기타소비 14.2%이다. 75세 이상 고연령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8.7%, 주거광열비 18.2%, 보건의료비 18.3%이다. 저연령 가구의 경우 교통비 비중이 높다.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식비, 주거광열비, 보건의료비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4) 학력별 지출

무학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9.7%, 주거광열비 18.1%, 보건의료비 10.8%, 교육보육비 12.0%이다. 초졸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7.0%, 주거광열비 17.3%, 보건의료비 11.8%, 기타소비 11.3%이다. 중졸 소득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6.9%, 주거광열비 11.3%, 기타소비 15.4%이다. 고졸 가구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3.8%, 주거광열비 11.2%, 교통비 9.3%, 기타소비 13.9%이다.

대졸 가구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1.1%, 주거광열비 9.1%, 교통비 10.0%, 문화생활비 6.3%, 기타소비 12.6%이다. 대학원 가구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15.3%, 주거광열비 6.0%, 교통비 11.1%, 문화생활비 5.53%, 교육보육비 10.9%, 기타소비 18.3%이다. 학력이 증가할수록 식비와 주거광열비 비중은 감소하고 교통비와 문화생활비 비중은 증가한다.

소득과 특성별로 지출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식비, 주거광열비, 보건의료비가 한 지출그룹이 된다. 이들 품목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기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떨어진다. 반면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교육보육비, 기타소비, 비소비는 또 하나의 지출그룹을 형성한다. 이들 품목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올라간다.

〈표 8〉 서울시 고령가구 항목별 지출

	식비	주거광열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교육보육비	기타소비	비소비
소득	↓	↓	↓	↑	↑	↑	↑	↑	↑
여성	↑	↑	↑	↓	↓	↓	↓	↓	↓
연령	↑	↑	↑	↓	↓	↓	↓	↓	↓
학력	↓	↓	↓	↑	↑	↑	↑	↑	↑

(5) 가구원수별 지출

1인 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7.9%, 주거광열비 22.3%, 보건의료비 12.9%, 기타 소비 14.7%이다. 2인가구의 경우 식비가 27.0%, 주거광열비 13.0%, 보건의료비 10.0%, 기타 소비 14.8%이다. 3인가구의 경우 식비가 23.2%, 주거광열비 10.0%, 교통비 10.7%, 기타 소비 14.7%이다.

4인가구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17.7%, 주거광열비 10.7%, 교통비 11.9%, 교육보육비 10.9%, 기타소비 12.1%이다. 5인가구의 경우 식비가 21.3%, 주거광열비 8.0%, 교통비 11.2%, 교육보육비 15.5%, 기타소비 14.3%이다. 6인가구의 경우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가 22.8%, 주거광열비 5.1%, 교통비 15.4%, 통신비 7.4%, 문화생활비 5.53%, 교육보육비 11.7%, 기타소비 10.7%이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식비와 주거광열비 비중은 감소하고 교통비, 문화생활비, 통신비, 교육보육비 비중은 증가한다.

<표 9> 서울시 고령가구 항목별 지출

(단위 : 천원)

		가계 총지출	식비	주거및 광열 수도비	피복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 생활비	보건 의료비	가구 집기 구입비	교육비 보육비	기타 소비1)	비소비 지출2)
성 별	남자	2,011.3	476.8	207.9	80.1	197.4	116.0	76.2	146.5	29.8	113.4	286.7	280.5
	여자	1,125.1	262.6	179.7	31.3	88.6	52.1	25.3	101.4	23.9	70.9	149.8	139.4
연령 별	55~64	2,473.4	507.2	230.6	105.7	276.5	153.4	103.2	116.9	38.5	192.1	368.6	380.7
	65~74	1,391.1	384.7	184.2	43.7	108.7	67.6	35.1	133.5	20.5	40.7	196.9	175.5
	75~	887.3	254.5	163.7	22.9	38.7	34.1	22.4	162.6	21.5	31.1	77.7	58.1
교육 수준	무학	737.0	219.2	133.5	22.4	44.1	27.2	15.8	79.8	6.4	88.5	62.4	37.7
	초등학교이하	1,130.4	305.1	195.5	34.3	85.2	63.8	22.0	133.0	12.0	26.6	150.2	102.6
	중학교이하	1,585.9	426.0	179.6	56.0	163.0	100.8	30.6	108.5	14.9	88.4	244.3	173.9
	고등학교이하	1,802.2	428.2	201.0	74.1	168.1	116.3	47.8	132.6	31.8	87.6	251.1	263.5
	대학교이하	2,723.9	574.6	248.7	109.7	272.6	137.4	170.9	202.9	69.5	162.1	342.4	433.1
	대학원이하	5,025.7	766.7	304.0	197.3	556.3	165.7	274.9	132.7	82.8	546.7	920.2	1,078.4
가구 원수	1명	707.9	197.2	157.7	19.7	31.5	27.4	16.3	91.7	17.9	3.3	104.0	41.1
	2명	1,516.3	398.8	196.8	53.2	116.2	71.8	44.0	151.9	33.9	9.5	223.9	216.2
	3명	2,189.7	511.9	220.0	82.1	234.4	138.2	51.8	143.2	29.2	166.9	321.7	290.3
	4명	2,957.6	533.5	226.8	132.2	351.1	190.5	204.0	113.2	27.5	322.1	357.0	499.7
	5명	3,509.5	746.7	281.2	145.7	392.7	205.6	75.9	153.7	23.0	543.8	500.7	440.7
	6명	3,851.7	880.0	194.8	140.0	591.4	285.6	156.2	166.0	12.0	450.0	410.8	564.8
소득 별	100만원이하	900.2	281.7	170.3	26.1	55.5	44.8	17.0	90.9	13.9	28.6	105.6	65.9
	200만원이하	1,447.8	375.2	191.4	41.6	116.3	84.6	33.5	159.2	35.9	64.0	162.6	183.6
	300만원이하	2,336.7	531.9	220.6	104.9	223.8	138.2	86.8	149.2	55.5	174.3	314.0	337.4
	300만원이상	3,506.3	649.4	257.2	149.7	416.9	194.1	169.4	183.2	30.6	249.2	598.1	608.5

* 주 1: 기타소비는 경조사 부조금/기부금, 귀금속 구입비, 가구원잡비, 목욕료, 화장품 구입비, 교재비, 모임 회비 등 통상적인 제 생활유지비, 가구원 생활보조금, 결혼비용, 장례비용, 공공기관 관련 수수료, 사회/종교 단체 지원금 등이 포함

** 주 2: 비소비지출은 대출이자상환, 가구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생활보조금,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벌과금 등이 포함

***자료: 국민연금 패널 원자료

제4절 정책제언

1. 정책제언

1) 근로소득 지원

100만이하의 저소득가구의 소득원천을 보면 근로소득이 33.8%, 사적이전소득 30.6%, 공적이전소득 24.5%이다. 이들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다.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이 노령기초연금이고 일부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재정상 공적이전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의 고령층이 근로기회를 갖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하거나 사회적기업 육성시에 고령자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근로에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소득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2) 저소득 고령가구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

100만이하의 저지출 가구의 지출구성을 보면 식비가 31.3%, 주거비 18.9%, 보건의료비 10.1%이다. 이들 가구는 식비와 주거광열비, 보건의료비 비중은 높고 이들 세 지출 비중이 60.3%에 해당한다. 이들 가구는 생계에 꼭 필요한 이들 항목에 주로 지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균지출 이하인 100~200만원 가구를 보더라도 식비가 25.9%, 주거광열비 13.2%, 보건의료비 11.0%로 이들 지출이 소득의 50%를 넘는다. 특별히 보건의료비 비중은 매우 높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고령가구에 대해 주거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SDI**